

“실무중심형 글로벌 창의인재로 지속적인 지원 이어갈 것”

전북대 신한류 페스티벌 베트남서 개최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10번째 신한류 축제

가 최근 베트남에서 성황리 열렸다.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교의 협조와 지원 아래 개최된 이번 페스티벌은 양 국가가 차이를 넘어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조화'와 '융합'의 의미를 담은 'VIETURE[비추리] : 함께 물들다'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 전통종이인 한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행사와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제1부 체험 행사에서는 'K-FOOD'(전통음료), 'K-PAPER'(한지공예), 'K-STYLE'(한복 및 화장품), 'K-PLAY'(전통놀이)의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한국의 문화를 선보였다.

제2부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퓨전 국악 공연에서부터 K-POP 댄스, 태권도와 K-POP을 접목한 태권무 공연에 이르기까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한류 문화의 멋과 흥을 전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신한류 페스티벌 개최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기업 국외지사 탐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에 대한 안목을 넓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 단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속에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참여 학생이 전주 한지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한지를 배워보고 직접 한지공예 교육에 참여해 더욱 뜻 깊었다”며 “학생들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10번째 신한류 축제가 최근 베트남에서 성황리 열렸다.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신한류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실무중심형 글로벌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속에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참여 학생이 전주 한지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한지를 배워보고 직접 한지공예 교육에 참여해 더욱 뜻 깊었다”며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신한류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실무중심형 글로벌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새활용 야외장터 '장수 모이장' 행사 개최

장수군은 5일 서울 새활용플라자(서울시 성동구)에서 개관행사와 함께 새활용 야외장터 '장수모이장(부제 백로장)' 행사를 가졌다.

'장수모이장'은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24절기를 부제로, 장수 켈라프 만들기(오미자, 토마토, 사과, 쌀), 장수 막걸리 만들기, 장수샐러드 컵 화분만들기 등 지역의 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또한 장수군의 우수한 농식품인 사과즙, 오미자청, 토마토, 표고버섯 등을 판매하는 야외장터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이번 개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새활용 플라자 잔디광장에서 3회 열릴 예정이다.

특히 서울 새활용플라자는 도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서울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장수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능협,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열어

김제능협이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노사가 소통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제시 장애인체육관에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는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사 구분없이 팀을 구성해 배구경기 등을 치루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능협은 김제시, 부강면, 죽산면을 관할지역으로 조합원 3000여명, 임직원 110여명으로 구성된 김제지역 최대능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서, 의무위반 예방 열린 특별토론 시간 가져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은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 50일 계획 관련 전 직원이 경찰서장과 함께하는 의무위반 예방 특별토론 시간을 가졌다.

최근 경찰의 성, 음주운전, 갑질 등 비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과 조직의 발전방향을 위한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직원들은 상하구분 없는 원형의 좌석배치에서부터 자유스런 토론분위기까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토론형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면서도 “언론에 공개된 의무위반 사례”를 들을때 마다 같은 동료경찰의 행위로 믿어지지 않았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사 내방

- ▲ 이강호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 ▲ 이광경 전북도지사 비서실 비서실장
- ▲ 이태근 전북도 정무기획팀장

임실군의회 문영두 의장 · 이성재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임실군의회 문영두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7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이성재 의원은 전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전북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문영두 의장



이성재 의원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열린 제15회 전북시군의회 한마음 대회에서 문영두 의장은 제7대 임실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뛰어난 친화력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문영두 의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민의를 받들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성재 의원은 “의정봉사상을 받을 훌륭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대신 받았다고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의회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경 기자

이권재 신임 전북도 족구협회 회장 취임

전북도 족구협회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이권재 전 김제시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영수 회장 포함 임원 전원이 불신임 사유로 해임되어 위기에 놓인 협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출마한 이권재 회장은 “소통과 투명으로 단결과 화합하는 협회가 되도록 남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된 이권재 회장은 현재 한국 외식업중앙회 김제 지부장으로 지역발전과 외식업 발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북도내 14개 시·군 대의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신임 이권재 회장에게 협회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마음으로 족구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기에 놓인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 족구 협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빠른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무주경찰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안전 활동 전개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5일 신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 주변 안전 활동 등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안전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이날 활동은 적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번째로 구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찰, 교육청,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나영민 서장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서 무주경찰서 전 직원이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7 **임실치즈축제**
10.6(금)~9(월)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일원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